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6. 25(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동해안에서 울산과 함께 미래를 찾는다!** 6.25. 울산시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송철호 시장 상생발전협약 체결 선도적 문화관광도시 조성,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구축 등 5개 과제 협력키로	정책기획관	
②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걸음' 6·25 교훈 되새긴다** '6·25전쟁 70주년 행사'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담아 거행 이철우 도지사, 대구보훈병원 입원중인 배선두 애국지사 위문	사회복지과	
③ **"군위의성, 신공항 이전에 합일점 찾아라" .. 시도민들 요구 빗발쳐** 시장군수협의회, 대구시민추진단 등 기관단체 잇따른 촉구성명 발표, 전달 부지선정 임박한 가운데, 각급 기관대표들 현장방문, 설득 이어져	통합신공항 추진지원반	
④ **#이제 다시 경북! 경북관광 빛(光)을 보다(觀)** 3대문화권 활성화 포럼 개최, 대한민국 History 경북관광으로 HI STORY	관광정책과	
⑤ **'경북도, 유연인쇄전자 기술개발에 국비 57억 확보** 과기부 R&D사업 공모선정, 총 사업비 114억 투입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지역 산학연 동참, 과학기술을 통한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성공사례 기대	과학기술 정책과	
⑥ **'2020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열띤 경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등 13개 품질분임조 경북대표로 선발 품질·생산성 향상, 현장개선 등 기업의 품질혁신 기반 확대	중소벤처 기업과	
⑦ **'물산업 협력커뮤니티가 경북 물산업의 미래를 책임진다.** '11차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물산업 활성화방안 공유 산·관·연이 모여 물산업 분야 최신기술 흐름 공유 등 정보교류	맑은물정책과	
⑧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글로벌 K뷰티로 도약 준비**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 올해 첫 위원회 개최 경북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 심의 및 화장품산업 발전방안 논의 등	바이오생명 산업과	
⑨ **'경북 소방공무원 심리적 응급처치(PFA) 지원인력 양성**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와 도민의 마음건강 지킴이로 앞장 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다시 뛰자 경북 경산시 현장간담회' 참석	대변인	
★ **사진설명**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결정 기원'	서울본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기획관	정 성 현	
			팀 장	허윤홍	주무관 김수환
		연락처	054-880-2138		

경북도, 동해안에서 울산과 함께 미래를 찾는다!

- 6.25.(목) 울산시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송철호 시장 상생발전협약 체결 -

- 선도적 문화관광도시 조성,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구축 등 5개 과제 협력키로 -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은 6월 25일 울산시청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축으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울산시는 동해안이 성장의 핵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 문화관광도시 조성,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구축, △스포츠 교류 활성화,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등 5개 분야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 동해남부권과 울산은 지리적으로 동해 1700리(경북 1300리, 울산 400리)의 아름다운 해안을 공유하고 산업적으로는 소재·부품(경북)-최종재(울산)로 이어지는 보완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원전 13기(경북 11기, 울산 2기) 등 상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이번 상생협력은 환동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울산은 동해안의 일출명소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 역사·문화적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선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관광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스(MICE), 철도여행 등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으로 광역연계 관광객을 유치해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지역인 경북(중수로 분야)과 울산(경수로

분야)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전해체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한다. 경북과 울산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대상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 미국 베이츠화이트(Bateswhite)社 전망 : 2050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327조원 규모

아울러 프로축구 동해안 더비(울산-포항), 태화강-형산강 수상스포츠 협약 등 지역 간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 우수 선수와 구단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상호활용 등 체육 분야 민간교류를 확대해 연대를 강화한다.

그 외에도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을 포스트 코로나 국가 뉴딜사업으로 조기추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교류전, 서울장터 공동운영, 학교급식 협력 등을 통해 경북과 울산의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시·도민 간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민소득 5만불 시대의 해답은 동해안에 있다”는 오랜 신념을 말하며, “해양자원, 해양관광 등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므로 동해안에서 울산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상생협력을 제안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울산은 오랜 시간 경북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오늘 협약이 울산-경북 간 경쟁을 넘어 상생으로 울산과 경북이 다시 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협약식은 2016년 출범한 울산·포항·경주 간 행정협의회인 해오름동맹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공동보급 등 26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동해남부선(포항~울산) 개통 시('21.6) 부전(부산)~태화강(울산) 전동차 운행 구간을 송정역(울산)~신경주역(경주)까지 연장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경북-울산 간 상생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진 추후발송〉

참고

- 울산광역시·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 -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특별회의 개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6. 25.(목) 17:00~19:20 *만찬포함 / 울산시청 7층 상황실

○ 참석대상 : 30명 정도

- (울산시) 시장, 사업관련 실·국장(4명), 정책기획관 등
- (경북도) 도지사, 문화국장, 환경국장, 동해안국장, 정책기획관
- (포항·경주시) 포항·경주시장, 사업관련 실·국장(각 4명), 소관부서장

○ 주요내용

- **(울산-경북) 원전·에너지, 물·환경, 문화관광·체육분야, 농업분야 협력**
- **(해오름동맹) 현안사업 논의 및 공동건의문 채택**
  - 해오름동맹도시 여행상품 개발·운영 프로젝트 추진(신규)
  -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 공동건의문 채택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소요	세 부 내 용	비 고
환 담	16:40~17:00	20분	• 영접 및 환담	접견실 (행정부시장, 정책기획관)
1 부 (울산-경북 MOU)	17:00~17:02	2분	•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자(균형발전담당)
	17:02~17:17	15분	• 인사말씀	울산시장→경북도지사 →경주시장→포항시장
	17:17~17:29	12분	• 추진배경 및 협력과제 보고 • 울산-경북 우호교류협약 체결	정책기획관(울산)
2 부 (해오름동맹)	17:29~17:42	13분	• 공동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 •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운행 건의문 채택	정책기획관(울산)
	17:42~17:45	3분	• 기념촬영	
	17:45~18:00	15분	• 제안말씀 (비공개 진행)	경북도지사→경주시장 →포항시장→울산시장
이동 및 만찬	18:00~18:20	20분	• 차량 이동(회의장→만찬장)	버스 이동
	18:20~19:20	60분	• 만 찬	돋질로(한정식)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 성 자	과 장	진 원 식		
			사무관	최복숙	주무관	권규보
		연 락 처	054-880-3733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걸음’ 6·25 교훈 되새긴다

- ‘6·25전쟁 70주년 행사’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담아 거행 -
- 이철우 도지사, 대구보훈병원 입원중인 배선두 애국지사 위문 -

경상북도에서는 6·25전쟁 70년을 맞아 6월 25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평화를 위한 기억, 그리고 한걸음’라는 슬로건으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위국헌신에 감사하는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정희용 국회의원, 백선기 칠곡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단체, 군인,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6·25전쟁 70주년 홍보 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및 6·25전쟁 참전용사 감사메달 전수, 아남카라 여성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호국노래(전우야 잘자라)합창,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후행사로 국악밴드의 공연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특공무술 시범이 있었다.

부대행사로는 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서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 개최와 관련 영상 상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경상북도가 있었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으며, 그 바탕에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면서,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했듯이,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산업구조 혁신 같은 미래도약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마치고 이철우 도지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병원에 입원한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배선두(97세) 애국지사를 방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선두 애국지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필 것을 약속했다.

<사진 추후송부>

참고

6.25전쟁 70주년 행사 계획

○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상기 및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6. 25.(목) 10: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대강당
○ 참　　석 : 350명 정도(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참전용사, 군장병 등)
○ 주　　최 : 경상북도 / 칠곡군
○ 주　　관 : 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
○ 행사내용 : 표창수여, 기념사, 6.25노래제창, 만세삼창, 공연 등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별		내 용	비 고
본행사 (1부)	10:00~10:05	5′	• 개식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5~10:15	10′	• 국민의례	
	10:15~10:18	3′	• 6.25전쟁 70주년 홍보 동영상	
	10:18~10:30	12′	• 유공자 표창(도5) • 참전용사 감사메달 전수(4) • 유공자 표창(군3)	도지사, 군수
	10:30~10:35	5′	• 환영사	군수
	10:35~10:40	5′	• 기념사	도지사
	10:40~10:45	5′	• 인사말씀	도의장, 교육감 국회의원, 군의장
	10:45~10:50	5′	• 호국노래합창(전우야 잘자라) • 6.25노래 제창	아남카라 여성합창단
	10:50~10:53	3′	• 만세삼창	6.25 도지부장
	10:53~11:00	7′	• 70주년 퍼포먼스	주요내빈
식후행사 (2부)	11:00~11:30	30′	• 호국감사 위안공연	국악밴드, 특공무술
부대행사	10:00~11:30	90′	• 6.25 사진전시 및 영상상영 • 독도사진전시	특임 경북지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통합신공항 추진지원반(T/F)		
		작성자	반 장	김 장 호	
			팀 장	안성렬	담당자 금두연
		연락처	054-880-2115		

"군위·의성, 신공항 이전에 합일점 찾아라" .. 시도민들 요구 빗발쳐

- 시장군수협의회, 대구시민추진단 등 기관단체 잇따른 촉구성명 발표, 전달 -
- 부지선정 임박한 가운데, 각급 기관대표들 현장방문, 설득 이어져 -

6월 26일 국방부 부지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3일 부지선정위원회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와 민간 위원회, 각급 기관·단체 등 범시도민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7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과 군위·의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데 이어, 12일에는 '대구시민추진단'이 이전부지 선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17일에는 지역의 300여 기관·단체와 학계, 연구원, 언론기관 등이 총망라된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부지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었고, 23일에는 구미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도에 전달하는 등 지역 각계각층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결집되고 있다.

※ 금일(6.25), 도내 5개 청년단체대표들(20여명)도 도청을 방문해 성명서 발표, 전달 후, 군위, 의성을 방문해 의지표명 및 성명서 전달 예정
- 경북지구JC, 경북4-H연합회, 경북청년CEO협회, 경북청년봉사단, 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들 성명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모두가 '최종 이전지 선정만 남은 단계에서, 통합신공항 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전부지를 조속히 선정하라'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촉구 러시가 이어진 데는,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그간 유치신청 문제로 수개월째 사업진행이 답보상태로 이어지면서, 자칫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범시도민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북도 차원에서는 이미 10일 총력전을 선포하고 사활을 건 상태다.

도는 지난 23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소속 전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이 함께 참여한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전 간부와 기관장들에게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대구경북이 죽느냐 사느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달려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신공항을 추진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도지사 서한문을 도내 300여개 기관·단체에 발송하고, 군위·의성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기관·단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과 범시도민 차원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지역 리더들이 양 군의 합의를 위한 설득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희범 前 산업부장관 등 지역 주요 기관장들과 단체 대표들이 군위·의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 군수를 만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시도민들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도지사로서 책무가 막중하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구하고 지역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조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서 태 원	
			팀 장	이종익	주무관 임서영
		연 락 처	054-880-3194		

#이제 다시 경북! 경북관광 빛(光)을 보다(觀)

- 3대문화권 활성화 포럼 개최, 대한민국 History 경북관광으로 HI STORY -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 사업을 활용한 포스트 코로나 관광트렌드 전망 및 경북관광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이제 다시 경북! 경북관광 빛(光)을 보다(觀) - 3대문화권 활성화 포럼’ 행사를 25일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History 경북관광으로 HI STORY’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관광 활성화 포럼은 △3대문화권 특화 사업장 사례발표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이하‘진흥사업’) 설명회 및 오픈 토론쇼(경북관광 알쓸신잡) △경북관광 활성화 붐업 콘서트 및 퍼포먼스 △전문가 주제강연과 관광시설 사업장 운영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군 3대 문화권 특화사업장 운영관리 담당자, 진흥사업 수행업체, 체험관광상품 주민사업체 등 민·관이 함께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동행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복합 테마리조트 문경 에코랄라, 지역 특화 콘텐츠 영양 음식디미방, 청정·웰니스 울진 금강송에코리움의 순서로 진행된 3대문화권 특화사업장 사례발표에서는 특화사업장 운영관리 실무자가 직접 발표해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줬다.

진흥사업 수행업체의 사업 설명회는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인 ‘HI STORY 경북’, 민간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경북 통합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북

투어패스’ 등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진행 실적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며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 속 작은 문화융합교육으로 진행된 오픈 토론쇼 형식의 경북관광 알쓸신잡과 콩트, 팝페라, 브리핑 등 다양한 공연형식으로 구성된 붐업 콘서트에서는 실무자의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감성 코칭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관광트렌드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야외 붐업 퍼포먼스에서는 행사 참석자 전원이 야외 광장에 모여 ‘#박살 코로나’, ‘#이제다시경북’ 등 희망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명장면 연출로 붐업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관광트렌드 전망 및 포스트 코로나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란수 한양대교수의 강연에서는 예측 가능한 관광트렌드 전망 및 대내·외 경북 관광의 이미지 분석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경북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행사장 내외·부 공간에는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인 대표 아마추어 사업자,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육성 사업을 통해 발굴한 16개 사업체의 체험 관광상품을 14개 부스로 구성해 다양한 식음, 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무너져가는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안전·청정·힐링 등이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 가장 경북다운 모습으로 국내관광의 입지를 높여갈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경북만의 스토리 원석에 텔링을 입혀 관광 명품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추후송부>

참고

#이제 다시 경북! 경북관광 빛(光)을 보다(觀)
- 3대문화권 활성화 포럼 개최 -

□ 추진배경

○ 3대문화권 기반조성 완료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운영주체(시군, 민간) 실행 역량강화 필요(서비스 고도화, 성과관리 체계 등)

*** '20. 6월 말 기준 43개 지구 중 24개소 완료, 19개소 추진 중(평균 공정률 85%)**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세부 실행과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군, 수행업체, 주민사업체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개요

○ 일　　자 : 2020. 6. 25.(목) 10:00 ~

○ 장　　소 :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3대문화권 사업장**

○ 참석대상 : 150명 정도

- 시군 사업장 운영관리, 관광진흥사업 담당자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HI STORY 경북, 경북 투어패스 등) 수행업체
- 아마추어 관광사업자, 스타관광벤처,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등

○ 주　　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내용

○ **(운영사례)** 3대문화권 기반조성 완료 특화 사업장 사례 발표(KMAC&시군)

- 문경 에코랄라, 영양 음식디미방,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 **(사업이해)** 관광진흥사업 설명 PT(HI STORY, 경북투어마스터, 경북투어패스 등) 및 오픈 토론쇼(道, 관광공사, 수행업체 패널 참석)

○ **(주제강연)** 관광트렌드 전망 및 포스트 코로나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 **(역량강화)** 시군 사업 담당자 아카데미 과정(스토리텔링 기획 방법론)

<3대문화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 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2021. 12.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241억원, 11개 사업)의 일환**
○ 사 업 비 : 825백만원(총괄계약, '19년~'21년 연도별 275백만원)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경북문화관광공사 위탁사업, 총괄계약)
○ 사업내용 : 3대문화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성과창출 기반 마련

□ 주요기획(안)

슬로건	대한민국 History 경북관광으로 HI STORY!

~ 10:00	등록 및 개회	❶ 참석자 등록 접수 - 열화상카메라 체크, 등록부 작성, 티셔츠 배부 등 ❷ 참석자 소개 (10') ❸ 개회사 (10')
10:00 ~ 10:30	특화 사업장 사례발표	❶「복합 테마리조트」 문경 에코랄라 (10') ❷「특화 콘텐츠」 영양 음식디미방 (10') ❸「청정·웰니스 투어」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10')
〈10:30 ~ 10:40 Break Time〉		
10:40 ~ 12:00	관광진흥사업 설명회 및 오픈 토론쇼	❶ 경북 문화기행「HI STORY 경북」(10') ❷ 문화여행 기획전문가 육성 (10') ❸ 대표 아마추어 사업자 육성 (10') ❹ 경북 투어패스 (10') ❺ 경북관광「알쓸신잡」(40')
〈12:00 ~ 13:20 Lunch Time〉		
13:20 ~ 15:20	3대문화권 붐업 퍼포먼스	❶ 붐업 콘서트 (90') - 장 소 이 동 (10') - ❷ 인사말씀 등 (5') ❸ 3대문화권 붐업 퍼포먼스「#이제다시경북!」(15')
〈15:20 ~ 15:40 Break Time〉		
15:40 ~ 16:40	전문가 주제 강연	❶ 포스트 코로나 관광트렌드 전망 및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60') ☞ 한양대 정란수 교수
〈16:40 ~ 16:50 Break Time〉		
16:50 ~ 18:00	역량강화 및 폐회	❶ 스토리텔링 기획 방법론 (60') ☞ 최지연 에이치스토리 대표 ❷ 폐회식 (10')
상 시 운 영	3대문화권 사업 간이 부스	❶ 43개 인프라 사업장 현황 ❷ 주민사업체 체험관광상품 등 전시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홍 석 표	
			팀 장	이영경	주무관 변상철
		연 락 처	054-880-2427		

경북도, 유연인쇄전자 기술개발에 국비 57억 확보

- 과기부 R&D사업 공모선정, 총 사업비 114억 투입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

- 지역 산학연 동참, 과학기술을 통한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성공사례 기대 -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규 R&D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7억원(총 사업비 1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원천기술개발과 상용화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에서부터 분야선정, 세부사업계획 등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Bottom-up(상향식) 방식의 R&D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역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산업육성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지역 컨소시엄 구성 등이 과기정통부의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되어 평가과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전자란 프린팅 공정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자회로 혹은 전자부품으로, 유연인쇄전자 기술은 유연성을 가진 인쇄전자 기술로 지역의 전통적인 전자산업을 신전자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신전자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 안동·구미·경산시가 각각 산·학·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지역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시는 금

오공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프로템, 티앤에스가 참여해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투명유연 PCB(집적회로), 투명유연 디지털 사이니지* 등)과 현장 실시간 바이오분자 진단기기 (투명발열필름 및 랩온어칩** 소재, 바이오진단기기 부품 등) 개발을 추진한다.

* 사이니지 : TV・PC・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크린으로 불리며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

** 랩온어칩(Lab-on-a-Chip) : 바이오칩의 일종으로 ‘하나의 칩 위에서 여러 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칩

경산시는 영남대학교, 경북테크노파크, ㈜진광화학이 참여하여 자동차 전장 소재 분야로 FPCB* 전장 및 스마트 윈도우 개발(전도성 잉크 및 필름, 플렉시블 투명전극 FPCB전장 소재 등)을 추진하며,

* FPCB(FLEXIBLE PCB) : 유연성 있는 절연기판을 사용한 배선판

안동시는 포항공대, 안동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이다스H&T가 참여하여 신체·사물부착형 플랙시블 IoT센서 시스템 개발(스마트 안전용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케어, RFID 물류테그 등)을 추진한다.

향후 경상북도는 유연인쇄전자의 소재, 부품, 공정장비의 패키지 개발과 상용화로 신전자산업의 과학산업 중심지로써의 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 산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가는 것 같다” 며, “침체된 지역 전자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 성과물이 지역기업 성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벤처기업과			
		작 성 자	과 장	이 강 학		
			사무관	김영길	주무관	조영철
		연 락 처	054-880-2684			

‘2020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열띤 경연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등 13개 품질분임조 경북대표로 선발 -
- 품질·생산성 향상, 현장개선 등 기업의 품질혁신 기반 확대 -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20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24일 경주시 더케이호텔 별관에서 열렸다.

본 경진대회는 기업의 자주적 품질혁신과 현장개선 등 개선사례를 발표해 지난 1년 동안 생산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를 평가받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로서, 올해는 13개사 19개 분임조가 참가하여 현장개선, 사무간접 등 8개 부문*의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8개 부문 : 현장개선, 사무간접, 안전, 설비, 보전경영, 상생협력, 자유형식, 제안

올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디자인’ 분임조, △중견기업 부문은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사업장 ‘일심’ 분임조, △공공기관 부문은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대성금속 ‘Proof/Art’ 분임조가 각각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13개 분임조는 금년 8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무관

중 온라인 중계(유튜브)로 진행되었으며, 팀별 대회 도착시간 분산, 발표 참여인원 최소화 등 행사장 내 인원 밀집을 최소화했다.

한편, 품질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레이첨단소재 장진호 차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지난해 전국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다빈치 분임조 등 9개 분임조에 도지사 표창을 개별 전수해 그 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강학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품질경영 활동은 원가절감과 불량률 감소 등에 기여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선진 품질경영기법 도입으로 기업 체질개선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2020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결과

구 분	부 문	소 속	분임조 명	결 과	비 고
대기업	현장개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디자인	**대상**	전국대회 출전
	안전품질	현대제철(주)포항공장	미래로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제안사례	현대제철(주)포항공장	개인(김동운)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중견기업	설비(TPM)	㈜풍산 안강사업장	개 미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자유형식	㈜TCC스틸	독수리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동보 경주공장	형광등	우수	
	현장개선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사업장	일 심	**대상**	전국대회 출전
	보전경영	㈜풍산 안강사업장	옥 돌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공공기관	현장개선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명실상감	우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미리내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육군 3887 부대	별 빛	우수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	양수지존	우수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	유레카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콘트롤파크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I See New	우수	
	상생협력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 (주)대성금속	Proof / Art	**대상 (대상기)**	전국대회 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 두산중공업(주)	Step by Step / 태평양	우수	
	자유형식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	무한열매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사무간접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Cool-韓	최우수	전국대회 출전

품질경영 유공자 표창 대상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명)

연번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소 속	성명		
1	㈜도레이첨단소재 구미사업장	장진호	자주개선 및 혁신활동의 주도적 역할 등	

□ 경상북도지사 표창(9명)

연번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소속	성명		
1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은호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다빈치 분임조]	
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김수민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스텝업 분임조]	
3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김창민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나비 분임조]	
4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SEV법인	응엔 반디엡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Three P 분임조]	
5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SVCC법인	판 히엔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Passion 분임조]	
6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SEVT법인	응엔 뜩티엔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Together 분임조]	
7	㈜풍산 안강사업장	김은근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목련 분임조]	
8	한국수력원자력(주) 예천양수발전소	임제순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무한열매 분임조]	
9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박종국	'19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샛별 분임조]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06. 25(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윤 봉 학	
			사무관	김종구	주무관 최창석
		연 락 처	054-880-3563		

물산업 협력커뮤니티가 경북 물산업의 미래를 책임진다.

- '11차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물산업 활성화방안 공유 -
- 산·관·연이 모여 물산업 분야 최신기술 흐름 공유 등 정보교류 -

경상북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물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0년 제11차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를 개최했다.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는 경상북도 유일한 물산업 분야 산·관·연 협의체로 2017년 9월 발대식 이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물산업 관련기업들과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를 개최하는 동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최근 4년간 관련기업들에게 26건의 R&D연구과제 및 물산업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아이엠씨 김성철 선임연구원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하수 관제 서비스 구축방안', △전자부품연구원 김재호 센터장의 '물관련 데이터 통합관리 초연결 플랫폼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노대경 선임연구원의 '2020년 물산업협력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 스마트 기반을 중심으로 한 물산업 활성화 및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하수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을 발표한 ㈜더아이엠씨 김성철 선임연구원은 침사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

터 기반 지능형 유입수 관제 시스템 개발사례를 소개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자부품연구원 김재호 센터장은 '물순환 데이터 통합관리 초연결 플랫폼 기반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계획 및 현황'을 주제로 물분야 최신 기술흐름을 소개하며 앞으로 도내 물기업들의 제품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노대경 선임연구원은 '2020년 물산업협력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여 산·관·연이 함께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의 기업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 명실상부 경상북도의 산·관·연 협의체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은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를 통해 정확한 시장정보와 기술변화를 소개하여 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추후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바이오생명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주 한	
			팀 장	김오현	주무관 남희성
		연 락 처	054-880-2522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글로벌 K뷰티로 도약 준비

-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 올해 첫 위원회 개최 -
- 경북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 심의 및 화장품산업 발전방안 논의 등 -

경상북도는 25일 경산 소재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월 뷰티 전담팀(바이오생명산업과 뷰티생명의료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경북도 및 경산시 관계자(당연직 3명), 도의원(위촉직 2명), 대학교수(위촉직 2명), 화장품·뷰티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장(위촉직 3명)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안),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클루앤코’ 운영지침 개정(안),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주요 심의 안건인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은 ‘기업중심 글로벌 K뷰티 생태계조성’을 목표로, △K뷰티 플랫폼 구축 △‘클루앤코’ 프리미엄 브랜드 확산 △K뷰티 강소기업 육성 △미래 선도형 뷰티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클루앤코’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회원사의 기준과 운영 관리방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브랜드(클루앤코)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CGMP 생산시설을 겸비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소,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클루앤코’ 태국 등 해외시장 확대, 149,173㎡ 규모의 화장품특화단지 조성, 경북도 뷰티전담팀 신설 등 경상북도 화장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에 따라 이날 심의한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과 공동브랜드 ‘클루앤코’ 운영지침 등을 바탕으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심의한 화장품산업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화장품 공동브랜드 클루앤코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화장품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 추후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6. 25(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한 상 일		
			소방령	정윤재	소방교	김아람
		연 락 처	054-880-6971			

경북 소방공무원 심리적 응급처치(PFA) 지원인력 양성

-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도와 도민의 마음건강 지킴이로 앞장 서 -

경북소방본부는 2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소방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마음건강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 소방심리지원단 현진희 단장과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김희국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화재·구조·구급과 같은 재난현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ical Fist Aid)’ 교육은 재난발생 시 급성기 재난경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초기 심리적 지원으로, 이론교육과 지진, 화재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심리교육을 실시하여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을 꾸준히 양성할 계획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경험자에게 초기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교육이다” 라며,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을 대면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다시 뛰자 경북 경산시 현장 간담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 26일(금) 오전 10시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다시 뛰자 경북 경산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주재한다.

사진설명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결정 기원’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와 경상북도 서울본부가 지난 6. 24일(수)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사무실에서 ‘함께 날아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결정을 기원했다.

(왼쪽부터 김외철 서울본부장, 권원오 시도민회 부회장, 이우동 사무총장단 회장)